

#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1) 발달 배경, 연구 동향과 전망\*

최 병 두\*\*

##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1) Context of Development, Research Trend and Prospect\*

Choi, Byung-Doo\*\*

**요약:** 국내에서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은 서구 지리학의 패러다임 전환, 즉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퇴조와 거시적 사회이론들의 도입에 바탕을 두고 부각된 신지역지리학에 영향을 받아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은 또한 현실 세계의 변화, 즉 자본주의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이에 동반되었던 기술혁신과 포스트포드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시공간적 압축,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동성 증대와 정체성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했다. 이러한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은 국내에서도 사회이론들에 바탕을 둔 지역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국내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침체하고, 이에 바탕을 둔 종합적 경험연구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개념 그 자체 보다는 관련된 다른 개념들 예로 장소, 경관,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등과 관련된 연구방법론에 관한 관심, 그리고 지리학의 개별 전공 분야들에서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촉진되었다. 지역 연구에서 종합적 접근과 계통적 접근 간 구분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지리학은 다양한 공간적 용어들과 관련한 지역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고찰을 통합하고 또한 지구지방화과정에 관한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실천적 전략의 모색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지역연구 방법론,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

**Abstract:** The concern on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has emerged in the 1990s under the influence of paradigm shift of Western geography, that is, the withering of positivist geography and the introduction of grand social theories into geography.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also seems to have developed in the rapidly changing process of glocalization of capitalism which has accompanied with the transformation toward post-Fordism with high-tech innovation,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time-space compression, and increasing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with change of identity. But it can be pointed out that discussion on methodology for regional geography in Korea has been shrunken since the mid 2000s, and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empirical research with synthetic approach to region. But more concern on methodology in terms of place, territory, network, scale, etc. rather than the concept of region itself has increased, and empirical researches on regions in specific fields of human geography have been promoted. It is argued that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synthetic and analytic approaches seems no longer significant. But geographers need to extend the concept of region in relation to other diverse spatial concepts, and to pursue simultaneously structural analysis on glocalization process and practical strategies responding positively to the process.

**Key Words:**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methodology for regional research, empirical study on region.

## 1. 서론

지역은 인간 삶의 기본 바탕이며, 지리학의 핵심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지역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는 지리학자들조차 지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유하고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리학에 관한 개념 정의

와 더불어 그 연구 주제의 선정도 변해 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지리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정의되어 왔으며,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부 지리학은 헤트너(Hettner, 안영진 역, 2014)의 지역학 또는 핫손(Hartshornre, 한국지리연구회 역, 1998)의 지역지리학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1960~1970년대 실증주의적 지리학

\* 이 논문은 2014년 지리학대회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지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최근 국내 지리학에서 지역연구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원고의 전반부를 수정한 것으로, 이 원고의 후반부(전공 분야별 지역 연구에 관한 논의)는 수정하여 다음 호에 게재하고자 한다.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bdchoi@daegu.ac.kr)

의 발달로, ‘공간조직’에 관한 법칙추구적 연구, 즉 공간적 분포의 유형과 과정에 관한 분석이 지리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뒤이어 실증주의적 공간분석이 퇴조하면서, 다양한 거시적 사회이론들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지역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이른바 ‘신지역지리학’이 등장하였다.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은 물론 지리학에서 거시적 사회이론의 도입과 지역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국가 기능 및 거버넌스 체제의 다규모화,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전환,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초공간적 이동성 등은 지역의 개념적 및 경험적 특성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을 개념적으로 재규정하고 경험적으로 재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고양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들이 전개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의 지리학에서도 서구의 이러한 ‘신지역지리학’을 소개하고, 지역의 재개념화와 접근방법의 재구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분야별로도 새로운 이론들을 원용하여 관심 지역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한국의 지역지리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거시적 이론들에 바탕을 둔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초기에 다소 활발했지만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지역에 관한 종합적 경험 연구들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지역지리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지리학의 세부 전공분야들에서는 관련된 (중범위) 이론들을 원용한 지역 분석들이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신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과는 내적 연계성을 가지지 못했다.

인간은 앞으로도 지표상의 일부로서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고, 지리학 역시 이러한 지역에 관한 연구 외에 달리 연구주제를 설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는 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이를 반영한 지역 역시 역동

적으로 변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에 조응하여 지역에 대한 개념 규정과 지역에 관한 경험적 분석도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이에 내재된 문제점 또는 한계의 극복, 나아가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지리학에서 전개된 신지역지리학의 발달 배경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의 지역지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이 등장·발달하게 된 학문적, 현실적 배경을 고찰한 후, 지난 20여년 정도 한국 지리학에서 제시된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방법론 논의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경험 연구 사례들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신지역지리학의 발달 배경 고찰과 연구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지역지리학이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배경

### 1) (지역)지리학 연구방법론의 변화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은 한편으로 지리학 내 연구방법론에 대한 성찰, 다른 한편으로 지역과 관련된 현실 세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양 측면의 변화는 대체로 서구 사회의 현실적 및 학문적 변화에 따른 외적 영향에 크게 의존하지만 또한 서구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 및 국내 지리학계의 주체적 대응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즉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은 학술적 연구에 대한 성찰과 현실 세계의 변화 간 관계, 그리고 서구 사회와 서구의 지리학 및 한국 사회와 한국의 지리학 간 관계 속에서 등장, 발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한국의 근대 지리학은 서구 지리학의 도입과 원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 식민통치에 의한 단절로 독자적인 학문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모든 분야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리학의 경우 조선시대 후

기 발달한 전통적 및 실학적 지역연구가 단절된 상태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지리학은 독자적인 지역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1960년대까지 한국의 지리학은 연구방법론이 미발달한 상태에서 지역에 관한 백과사전식 서술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지리학에 공간을 법칙추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이 도입되어, 유의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지리학 전반에 확산되었다(이기석, 1982; 김인, 1983).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방법론들이 제시되었고(최병두, 1988), 이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로, 그레고리(Gregory, 1978)와 존스톤(Johnston, 1979)의 저서들이 국내에서 널리 읽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인간주의 지리학, 구조주의 지리학, 정치경제학적 방법론(마르크스주의 이론) 등이 제시되었고, 또한 새로운 방법론적, 이론적 대안으로 구조화이론과 실재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던 이론 등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대안적 연구방법론들은 사실 지리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거대이론들이었다.

신지역지리학은 세계화에 따른 지역의 현실적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이나 이론들에 바탕을 두고 지역을 고찰하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 동향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는 서구의 지리학 나아가 사회과학 전반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방법론적 전환을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의 부활과 관련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을 위해 새롭게 제시된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 전통적 지역지리학에 대한 복고운동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방법론에 의해 재구성된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고 지역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서태열, 1989). 이러한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은 현실 세계에서 지역의 변화 및 이와 관련된 지역 개념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방법론(또는 사회이론)들을 배경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어, 관련된 주요 개념들이나 이슈들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즉 신지역지리학을 옹호하는 입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간적 패턴의 일반 법칙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지역연구를 간과했던 실증주의적 연구와 개성기술적 구체성만 강조하고 일반적 과정을 무시한 전통적 지역지리학은 동시에 비판되고, 그 대안으로 신지역지리학이 제시된다. 즉 신지역지리학은 지역연구를 중시하지만 "사회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서 사회과학으로서 공헌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역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다(이희연·최재현, 1998). 이러한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는 지리학자들과 사회이론가들 간 활발한 지적 교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강조되기도 했다(손명철, 2002).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즉 지역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사회과학방법론 또는 사회이론들은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대한 국지적 반응체로서 지역을 보는 관점(정치경제적 접근), 사회적 동질감(정체성) 확인의 초점으로서 지역을 보는 관점(인간주의적 및 구조주의적 접근),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 지역을 보는 관점(구조화이론 등)으로 구분되거나(서태열, 1989), 또는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실재론적 관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이희연·최재현, 1998). 이러한 이론들에 더하여 세계체제론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연구(이재하, 1997), 탈후기구조주의(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인간 주체를 강조하려는 연구 등이 포함되기도 하지만(손명철, 2002), 대체로 기본 유형 구분은 유지되고 있다(임병조·류재현, 2007).

이와 같이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은 새로운 사회이론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물론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개념적 논의들에서, 관련된 사회이론이나 접근방법에 대한 유형 구분은 약간 달라졌다고 하지만, 대체로 인간주의, 구조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구조화이론, 실재론, 포스트모

더니즘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세계체계론 등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이러한 이론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사회현상 일반 및 사회과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거시이론 또는 거대담론들이라는 점에서 유의성과 동시에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신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으로 도입된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여 국내 지역을 경험적으로 고찰한 사례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관련된 국내 논의에서 제시된 사회이론들이 대체로 길버트(Gilbert, 1988), 푸업(Pudup, 1988) 등에 의해 구분·제시된 것이고, 그 이후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지역지리학의 방법론에 관한 국내 논의들이 1990년대 거론된 사회이론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서구에서도 그 이후 괄목할 새로운 거대 이론들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서구 지리학에서 지역지리학의 내적 구성을 둘러싼 새로운 여러 논쟁들(예로, 실체론과 구성론, 영역론과 관계론 등)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신지역지리학과 관련된 사회이론들은 단지 '지역' 개념의 재구성과 좁은 의미의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다. 사실 새로운 사회이론들은 지역 외에도 다양한 공간적 개념들(예로 장소, 경관,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환경 등)에 관한 재고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재개념화와 지역 연구방법의 재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예로 헤트너와 핫손의 지역지리학과 대립했던 사우어(Sauer)의 경관론이 지역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즉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소재'로서 경관의 가치가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장되기도 했다(홍금수, 2009). 이와 같이 경관 가치의 재확인

과 실제 역사경관의 복원은 과거 지역지리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역지리를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최병두, 2012b).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에 기여한 또 다른 방법론적 논의는 박배균(201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한국학(국가 영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이 '방법론적 영역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공간과 사회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회공간론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차원으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서로 중첩되고 결합되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다중스케일의 네트워크적 영역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제슈 등(Jessop *et al.*, 2008)의 제안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여기서 영역주의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네트워크론(또는 네트워크적 영역성)에 관한 논의는 사실 서구 지리학에서 신지역지리학 등장 이후 발달한 영역으로서의 지역과 네트워크(또는 관계)로서 지역을 보는 관점 간 대립과 절충을 반영한 것이다. 박배균·김동완(2013)은 이러한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역 간 관계를 고찰하면서, 특히 "지역을 사회적 관계들이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구체화되고 물화되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한다.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발달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지리학의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위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규택(2005)은 한국 사회에서 "(탈)근대 지역의 형성, 유지,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지역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또는 이론적 틀로서 식민지-탈식민지론, 지방자치론, 사회적 자본론, 지역 정치생태학 등 4가지 유형의 이론 또는 개념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및 발전 배경으로 제시된 거시적 이론들과는 달리,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 계통적 분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지리학의 세부 분야별(예로 각각 문화역사지리, 정치지리, 사회지리, 환

경지리 등) 지역연구에서 원용될 수 있는 중범위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학의 각 분야에서 계통적 경험 연구를 위해 도입된 이론들은 이러한 4가지 유형 외에도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예로, 경제지리학에서 지역혁신론이나 클러스터론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주요한 틀이 되고 있으며, 문화지리학에서 장소마케팅론이나 지역정체성 이론, 환경지리학에서 생태적 근대화론이나 정치생태학도 주요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리학의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이론들은 해당 분야의 측면에서 지역을 새롭게 연구하기 위한 주요한 접근방법이나 분석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이론들은 위에서 논의한 거시적 이론들과는 달리 그 자체로 지역을 함의하거나 지역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역을 연구 주제로 설정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이론들에 바탕을 둔 지리학 분야별 지역연구에 관한 검토는 다른 논문에서 제시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이론들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틀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

라서 계통적 지역연구의 결과들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또는 최소한 지역의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지역 내/외 다른 분야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및 발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근대 이후 모든 사회이론과 철학적 전통을 총망라하여 이들에 함의된 공간적 개념들(지역을 포함)을 찾아내고 명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그 동안 사회이론에서 간과되어온 공간적 차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예로, 최병두 역(2013)은 벤야민의 도시사상이나 바흐킨의 공간대화론에서부터 들뢰즈, 라캉, 푸코 등의 포스트모던 이론들 그리고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론, 파농과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비릴리오의 지정학적 공간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대 이론들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간과 이론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지리학 내에서 그리고 이를 넘어서 이루어진 학문적 발전”을 담아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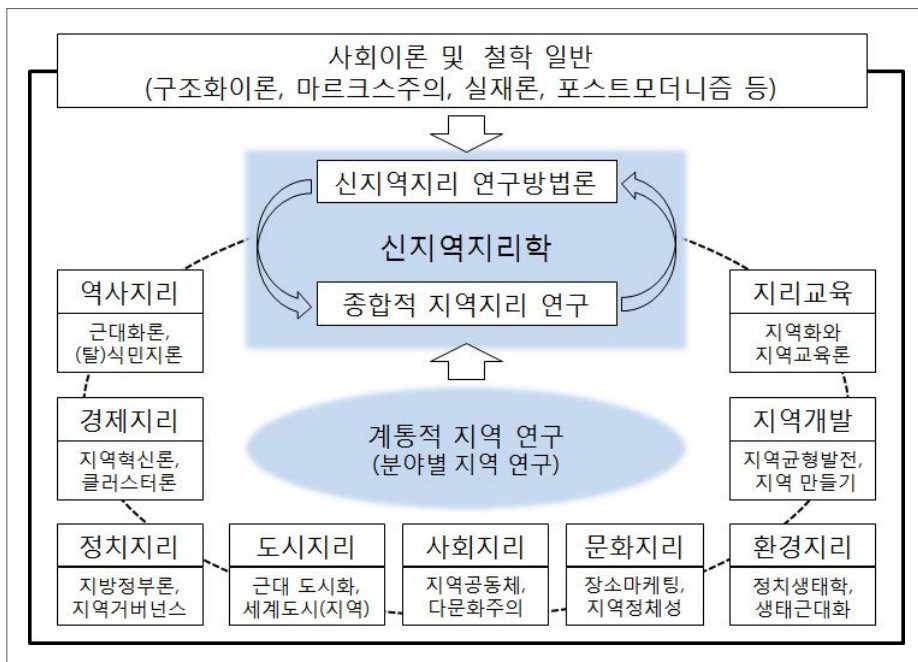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신지역지리학과 지역연구의 이론적 배경

이러한 거대 이론 또는 담론들이 신지역지리학이나 지역연구 방법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러한 거대 담론들에 관한 지리학적 또는 공간적 연구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서 지역이나 공간의 개념에 더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이론 일반에서 ‘공간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관심의 증대는 한국에서도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다른 분야들에서 이른바 ‘로컬리티’ 연구와 같은 공간적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지리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 2) 지역을 둘러싼 현실 세계의 변화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은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를 체계화한 학문은 기본적으로 그 내적 논리의 정교화와 더불어 경험적 외부 세계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한다. 신지역지리학 역시 지역 현실의 변화가 없었다면, 등장 또는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본격화된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은 어떤 지역-내적 변화보다는 지역-외적 조건들의 변화, 즉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과정과 이를 뒷받침한 신자유주의, 이러한 과정에서 발달한 기술혁신과 포스트포드주의 경제체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시공간적 압축,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동성과 정체성의 변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의 현실적 배경으로 가장 우선 논의될 점은 물론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지구화(또는 지구-지방화) 과정이다. 지구화란 다양한 지리적 규모로 전개되는 상호작용 또는 상호통합의 실제 과정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및 담론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또는 물질적 측면에서 지구화는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생산과 교역, 투자와 소비 활동 등과 이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행위체로서 초국적기업의 역할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지구화 과정을 통해 경제적

상호작용이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적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개념은 전통적인 지역 개념과는 다르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지역 개념이 경계설정에 바탕을 둔 지역화에 따라 명확한 지역 구분을 바탕으로 한 폐쇄적 개념이라면, 세계화와 함께 등장한 지역 개념에서는 개방성이 강조되고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게 되었다(최재현, 2005).

이러한 지구화 과정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초기 설명에서는 각 지역이나 국가들의 고유한 역할과 특성이 점차 약화되고 동질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지구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추정과는 달리 지역이나 국가가 사회공간적으로 재편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상실되거나 또는 동질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차별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은 지역 간 경제적 및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지역들을 통합시키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지역 간 차별성(또는 격차)을 확대시키면서 새로운 지역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새로운 특성은 다시 국가, 세계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희연·최재현, 1998). 이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된 지구적 과정과 지역적 과정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은 흔히 지구-지방화(glocalization)라고 불린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역 격차의 확대와 지역 특성의 생성이나 변화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역 격차는 양적 차이에 우선적으로 기인하면, 지역 특성은 질적 차이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Smith, 1984)에 의하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지역 간 균등화/차별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즉 자본축적 메커니즘)에 본연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지구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이 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도시나 지역의 재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나 분석은 4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병두, 2012, 255). 첫째는 세계도시체계론으로, 생산체계와 기술, 지구적 금융시장과 지구적 분업의 발달로 형성된 흐름의 공간 속에서 개별 지역이나 도시는 경제체계의 주요 결

절로 이해된다. 둘째는 다규모적 지구-지방화론으로, 지구화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이며 실제 도시나 지역은 자본 축적을 위하여 국가에 의해 다규모적으로, 즉 초국가적 및 아(sub)국가적 공간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셋째는 지구-지방적 상호작용론으로, 지구화는 강력한 거시적 경제력을 획일화를 향해 작동하지만, 지역의 특이성들은 지구화의 힘을 타협적으로 매개하여 지방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는 신지역주의론으로, 도시나 지역은 지구화에 단순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들을 혁신하여 전략적으로 지구화 과정에 적극 편입하여 이 과정을 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지구-지방화 과정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이 과정 속에서 지역의 변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지역의 변화는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로의존적으로 각기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의 고유한 경로의존적 변화 과정을 관통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즉 오늘날 지역의 변화를 추동하는 지구-지방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시장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원칙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또는 탈규제),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와 민영화 등을 지향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 메커니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하비(Harvey, 최병두 역, 200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 함의되어 있으며, 이것이 시작된 영국이나 미국 또는 이를 수용한 한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기업주의적 프로젝트(최병두, 2012)나 도시 속의 소규모 촌락이나 경관(홍금수 등, 2012; 지명인, 2012)에 이르기까지 관철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포스트포드주의(또는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은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과 궤적을 같이 하지만, 특히 지역 산업구조 및 입지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는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및 발전의 배경으로 간주된다. 예로 김덕현(2002)은 “포드즘에서 유연적 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이행하면서, 지역이 다시 그 정체성과 진정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포드주의 하에서 지역은 ‘계량화를 위한 분류 수단’이며 또한 단순히 ‘국가의 경제·정치적 통합의 대상’이었지만,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 이후 지역은 국지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가지면서 구체화된 장소이며 미학적 경관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지역지리학의 현실적 배경으로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 및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와 더불어 도시 기업가주의, 장소마케팅, 유연적 전문화, 적기생산체제 등은 도시 및 지역의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의 바탕이 된다(류연택, 2012). 특히 지역경제 재구조화와 관련된 지역 연구는 신산업지구 또는 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이나 지역혁신과 공동학습 전략을 통해 더 잘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나 전략들은 물론 이론적 또는 정책적 개념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변화하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다. 신제도학파가 주도한 신산업지구론과 포터(Porter)가 제안한 산업클러스터 이론, 그리고 네오스펙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 지역혁신론과 학습경제론은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라고 불리면서 새로운 지역연구의 발달 과정에서 주요한 논쟁을 유발했다. 이러한 신지역주의가 2000년대 중반 중앙정부(당시 참여정부)에 의해 지역산업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비판적 입장 간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권오혁, 2006).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을 추동한 또 다른 현실적 배경으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과정을 들 수 있다.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항공노선의 지구적 확장은 지역 간 거리마찰을 급감시키면서 이른바 ‘시공간적 압축’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발달과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통신기술의 발달 및 관련기기의 보급 확대는 실시간에 지역 간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초공간적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상품과 노동력, 자본과 기술의 이동성을 가속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개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소멸시키고 ‘지리학의

종말'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실제 지역의 소멸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간 관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증대는 인종 및 문화가 혼합된 새로운 다문화 지역사회의 형성을 가져왔다.

카스텔(Castells, 최병두 역, 2002)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우선 지역의 개념을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과거 교통통신기술이 미발달한 시대의 지역은 고유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고립된 장소로서 존재했지만, 오늘날 지역(특히 도시)은 교통과 통신의 네트워크화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존재한다. 물론 지역이나 장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내로 흡수되어 하나의 결절이 되며, 이러한 결절과 허브는 네트워크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된다. 달리 말해 교통통신기술과 물리적 하부시설의 발달은 이에 포섭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을 새롭게 구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 여부에 따라 '디지털 격차'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역적 격차가 초래되게 되었다. 한편, 비릴리오(Viljo)나 오제(Auge)의 주장에 의하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기계적 이동성의 증대 및 이를 위한 기계공간의 확장은 지역의 공간과 경관을 추상적, 무(탈)장소적인 것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이해된다(이희상, 2009).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역에 관한 정보 처리 및 전달 능력의 가속적 발전을 통해 지역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1960년대 컴퓨터의 발명과 계량혁명이 실증주의적 지리학과 법칙 추구적 '지역과학'의 등장을 가져왔다면,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의 발달은 지역에 관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이희연·최재현, 1998). 정보처리능력의 발달,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의 발달은 지역에 관한 정보의 누적과 분석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지식의 생성과 전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지식의 양식을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으로 분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신기기를 통해 처리·전달되는 형식적 지식보다는 지역(국지적 장소)에서의 대면적 접촉을 통해 생성·소

통되는 암묵적 지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끝으로 앞서 제시한 지역 외적 변화 요인들 외에도 지역 내적으로 촉진된 변화들, 즉 지방자치제 시행과 지역 거버넌스의 변화, 지역 정체성의 재구성과 지역(마을) 만들기 운동 등은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지역 내적 요인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외적 변화에 병행된 결과 또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지방자치제 시행과 지역 거버넌스의 발달은 사실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국가의 다규모화 과정에 동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시기는 당시 정부에 의해 '세계화' 전략이 추진된 것과 같은 시기, 즉 1990년대 중반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국가의 다규모화 과정에서 도입된 정책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에 관한 이와 같은 정책적 (또는 전략적) 관심의 증대는 지자체 단위의 부설 연구원과 이에 의해 수행된 지역연구(즉 서울학 등 지자체 명칭을 가진 지역학)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또한 지자체 단위의 지역지 발간을 촉진했다(전중환, 2012).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이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의 발달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정책과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했다. 달리 말해, 지방자치제와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지역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범적 제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안전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고, 지역의 정치는 중앙정치의 연장 또는 대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축된 지역 거버넌스 체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에 근거를 둔 사회적 합의보다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의 논리와 전문가와 지역경제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오히려 위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적(기업주의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지역 내 계층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최병두, 2012).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도 지역의 개념 전환과 더불어 신지역지리학의 주요한 배경으로 이해된다. 임병조·류제현(2007)에 의하면, “지역의 구성은 지역과 관련된 주체들이 다양한 지역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지역 동일성(identity)을 형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구축된 “지역은 객관적, 고정적 실체이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지구-지방화 담론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을 촉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 정체성의 함양을 전제로 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정책, 특히 장소마케팅 정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활용하여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시 이미지의 제고를 통해 역의 자원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 동향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에 관한 국내 초기 논의들은,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부각시킨 류우익(1986), 미국 지리학에서 지역지리학의 부흥을 소개한 유제현(198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신지역지리학의 등장보다는 지역지리학의 복고 경향을 다루었다.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을 명시적으로 논의한 서태열(1989)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과정을 3가지 관점에서 논의한 후,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적 차이는 존재하며(어쩌면 본질적으로), 따라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스케일(scale)의, 서로 다른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서태열, 1989, 9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전통적 지역지리학의 복고 또는 다양한 사회이론들에 바탕을 둔 것인지는 불명확했다. 그는 곧 이어서 “지역지리는 여전히 지리학의 종합적 성격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지역은 하나의 지리적 연구의 차원이 될 수도 있으며, 개념적 편의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을 연구대상

으로서 실제로 볼 것인지, 또는 개념적 구성물로 볼 것인가, 또는 이들을 절충할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도 남겨두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손명철(1994)은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서구 논의들을 번역하여 책으로 편집했으며, 송언근(1996), 최재우(1997) 등의 연구도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을 소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재하(1997)는 세계화 시대에 적실한 지역 연구방법론으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을 제시한다. 여기서 지역은 “세계경제체제의 재생산 메커니즘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또는 동인 이외에 위치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도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희연·최재현(1998)은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으로 구조주의, 인본주의, 실재론 등을 논의한 후, 신지역지리학에서 지역 개념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이들에 의하면, 지역은 사회적 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힘을 가지며, 역사적 산물과 사회적 과정이 형성되는 매개체이고, 작인으로서 인간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 또는 배경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지역지리학의 주요 쟁점과 이원론을 극복하고 지방화·정보화로 인한 지역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체계적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지역을 ‘체계’로 보는 접근방법이 앞서 논의한 이원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개념과 조응할 수 있는 방법론인가라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는 2002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특집호(8권 2호)에 게재된 논문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최병두(2002)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배경으로 사회이론들의 도입과 이에 따른 일련의 논쟁들을 소개하고, 핵심 쟁점으로 공간과 사회, 행위와 구조, 물질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인간사회와 자연환경 간 이원론적 관계들을 재논의하고, 현실세계의 지구화 과정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명철(2002)은 이러한 사회이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 즉 구조화이론, 공간분업론, 세계체제론, 탈후기구조주의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지역의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반면 박태화(2002)는 한국 전통지리 사상의 발달과정, 즉 고려시대의 풍수지

리적 사고, 조선시대의 지지, 조선 후기의 실학 지리의 발달이 서구 지리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각된 특정 방법론들, 즉 환경론적 접근, 개성기술적 접근, 과학적 내지 법칙추구적 접근에 조응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응 관계는 다소 임의적 또는 조작적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전통지리사상에서 지역연구를 위한 새로운 단초를 찾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김덕현(2002)은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공간적 재현 양식의 하나로 지역과 지역지리학이 재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지역개발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끝으로 안영진(2002)는 한국에서 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주요 내용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이러한 공동작업이 그 이후 국내 신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나 새로운 지역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당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와 연구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서구 지리학에서 거시적 사회이론들에 바탕을 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서구의 주요 국가별 지역지리학의 전반적 발전과정에 관한 논의들도 있었다. 예로 유제현(1987)의 미국 지역지리학 연구, 손명철(1995)의 프랑스 지역지리학 연구, 안영진·김상빈(2004)과 안영진(2006)의 독일의 지역지리학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각 국가별로 근대 지리학의 성립 이후 지역의 개념과 지역지리학적 연구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있다. 예로, 류제현(1987)은 미국의 지역지리학은 이미 1920~30년대(즉 핫슨이 등장하기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 이후 미국 지리학에서 지역지리학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안영진·김상빈(2004)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에서 지역지리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였고<sup>2)</sup>, 안영진(2006)에서는 그 이후 독일에서 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을 사회적 변화(예로, 지지의 실용적 필요성과 특히 1990년대 이래 통독에 따른 지지연구소의 설립 등)와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별 (신)지역지리학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신지역지리학에 초점을 두고 등장 및 발달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별로 전통적 (근대) 지역지리학에서 신지역지리학으로의 단계적 이행과정을 고찰하거나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지역지리학의 부각과 쇠퇴는 지리학 나아가 사회과학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현실 세계의 지구적 규모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권정화(2001)의 연구는 근대 지리학 방법론 논쟁에서 부각된 부분과 전체 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재론하고 있다. 또한 안영진(2013)에 의한 헤트너의 <지리학> 번역은 1998년 핫슨의 <지리학의 본질>의 번역 출간과 더불어 근대 지역지리학의 방법론 원문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시켰다. 또한 라우텐자흐의 <코레아: 저자의 여행과 문헌에 기초한 지지>가 김종규 등(2014)에 의해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리: 코레아>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지리학 분야에서 이러한 고전적 저서들의 번역은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거나 최소한 이들의 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내 신지역지리학의 발달에서 또 다른 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명시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지역지리학과 직접 관련된 연구방법론 논의로, 우선 최재현(2005)은 세계화에 따라 재등장한 지역 개념에 초점을 두고, 등장 배경과 새로운 지역 개념의 정의, 지역 정체성의 의미와 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는 지역 정체성의 의미를 인본주의, 후기구조주의, 제도주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그 성격을 유동성과 창조성, 장소관측과의 관련성, 문화 경제성, 다층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임병조·류제현(2007)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개념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지역은 역동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 이데올로기와 상징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지역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구성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동일성(identity)의 형성이 중요하며, 나아가 이의 구

축을 위하여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재하(2012)는 각 지역이나 지방이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의 지역간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공생적 상호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신지역주의 발전론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차이발전론을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최재현(2005)은 사회문화적 과정, 세계화된 경제와 지역적 대응 등의 다양한 연구주제를 가지며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될 수 있음을 부각시킨 반면, 임병조·류제현(2007)은 지역 주체들이 다양한 지역 특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강조하였고, 이재하(2012)는 차이요소로 지역의 물리적 특성들, 즉 위치, 자연환경, 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 등을 고려한다. 이 연구들은 기존의 신지역지리학적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을 직접 다룬 다른 논의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지역지리학 방법론 연구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이후 10년 정도는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리학자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지역지리학에 함의된 지역의 재개념화에 관한 직접적 연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소, 공간, 경관, 영역 등 전통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새롭게 공간적 개념으로 편입된 네트워크와 스케일 등의 개념을 지역과 관련하여 논의한 방법론적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장소와 관련된 논의로, 최병두(2002b)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에 함의된 장소성이 상실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장소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배경을 논의하고 있다. 이정훈(2004)은 (신)지역지리학 등에서 제시된 장소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검토하면서, 현대적 장소 변화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장소구성요소 및 장소이미지와 장소성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이기봉(2005)은 ‘단보’이긴 하지만, 지역의 개념과 더불어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하고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연구 방법론은 장소 개념과 더불어 경관 개념을 통해서도 논의되었다. 홍금수(2009, 46)에 의하면, “경관은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소재”가 된다. 그는 “지리학의 핵심에 지역이 자리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의 하나가 경관”이라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경관에 초점을 둔 지역연구에 대한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우어의 경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과거 경관의 복원을 위하여 ‘역사’에 의존하기보다 ‘기억’을 더 중요시한다. 즉 “시간간 시기의 경관과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본원인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병두(2012b)는 집단적 기억에 바탕을 둔 경관과 장소의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창조적 파괴’로 특징 지워지는 자본주의 도시에서 경관과 장소 복원 또는 창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개념들 예로 장소, 경관 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 연구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들, 즉 규모(또는 스케일), 네트워크, 로컬리티 등에 초점을 두고 지역연구 방법론을 논의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로, 최재현(2005)은 세계화 시대 지역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간 스케일, 네트워크, 장소, 공간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했다. 스케일이나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는 박배균에 의해 제시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즉 박배균(2001)은 공간에 대한 이론화에서 ‘지리적 규모’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들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규모에 대한 상대주의적 입장과 규모의 사회적 생산론을 제시한다. 박배균(2005)은 나아가 이러한 지리적 (다)규모의 관점에서 지역정치가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힘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또한 박배균(2010)은 대안적 지역개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비판하면서, 장소를 주어진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본질주의적 장소관 대신, 장소를 “복

잡한 권력 관계 속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 과정에 의해 구성'되며, 영역은 이러한 장소의 특수한 한 형태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지역 연구(특히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스케일, 영역, 장소 등에 관한 논의들은 박배균(2009; 2012) 그리고 백배균·김동완(2013) 등에서 종합된다. 박배균(2009)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을 위하여, 그리고 박배균(2012)은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을 위하여,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차원, 즉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에 주목하여 이들이 서로 중첩되고 결합되며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가를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영역성을 절대시하는 사회이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관계론적 전환'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중 스케일의 네트워크적 영역성' 개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영역성과 네트워크 차원을 결합한 다중스케일의 관점은 광주의 지역 개발담론, 국가공간의 불균등발전, 지방정치와 토건국가, 국가 스케일의 재편과 지역정치, 공간선택성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분석 등 국가(공간)과 지역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된다(박배균·김동완, 2013).

신지역지리학 또는 새로운 지역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주목할 또 다른 개념은 '로컬리티'(locality)이다. 이 개념은 1990년대 서구(특히 영국)에서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더불어 주로 지리학자들 사이 지역 연구를 위한 방법론 및 경험분석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신지역지리학의 방법론 연구에서 이에 관한 간략한 소개(서태열, 1989; 이희연·최재현, 1998; 손명철, 2002; 류제현, 2007) 외에는 지리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구동회(2010)는 이러한 로컬리티 연구의 기원이 영국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과정 및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논쟁에서 확인되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차이와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로컬리티에 관한 국내 연구에 지리학자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물들이 발표되고 있다. 예로 박규택·이상봉(2013)은 창조도시 담론

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 뒤 지역 및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로서 '생성의 로컬리티' 개념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들은 다양한 사회이론들의 도입을 통해 전통적 지역지리학을 (단계적으로 또는 단절적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 개념과 방법론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신지역지리학에서 재구성된 지역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심층적 논의를 필요하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역은 주어진 실체(또는 사물을 담는 용기)라기보다 사회적 사물과 그들 간 관계를 반영한 사회구성물이며, 그 특성이 정태적으로 상당 기간 불변 상태로 지속되기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배타적 경계로 폐쇄된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불분명하고 투과적인 경계로 개방적이고 '비한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역 개념의 재구성은 전통적 지역연구를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이론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적 개념들이 재구성되거나(예로, 장소, 영역, 공간 등) 또는 새롭게 도입되도록 했다(예로, 스케일, 네트워크, 로컬리티 등)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 신지역지리학 방법론 논의는 사실 여러 가지 한계 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초기 단계(즉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는 국내 연구가 서구 지리학에서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이후 진행된 논의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초기 단계의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서구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수준이었으며, 그 자체로는 의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경험적 연구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연구 방법론에 관한 초기 논의들이 주로 서구 사회이론의 거대 담론들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는 '지역' 자체의 개념에서 벗어나 (또는 능가하여) '경관과 기억에 기초한 지역' 연구(홍금수), '다규모적 네트워크-영역론' 주장(박배균) 등

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최근 서구의 지역연구 방법론 논의들을 반영한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내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지역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신지역지리학에 한정되기 보다는 장소와 경관이나 스케일, 네트워크 등으로 확장된다. 넷째, 신지역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을 능가하는 다양한 사회이론과 철학적 전통들을 수용할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 지리학자들의 논의와 그 영향력은 대체로 지리학 내로 한정되고 사회과학과 인문학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로컬리티 연구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참여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 4. 지역에 관한 ‘종합적’ 경험연구 동향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도 신지역지리학 연구방법론이 전반적으로 인정·확산되었지만, 실제 이에 기반을 둔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신지역지리학이 전통적 지역지리학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 즉 대상 지역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망라한 (그리고 부분들 간 상호관계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전제) 연구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관된 사회공간적 이론체계나 분석틀에 바탕을 두고 특정 지역을 경험적으로 고찰한 종합적 연구, 즉 ‘엄격한’ 의미의 신지역지리학적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지역에 관한 종합적 경험연구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들은 완전한 신지역지리학적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 지역지리학적 연구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었던 나열적 서술체계를 상당 정도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 연구에 좀 더 가까운 경우 ‘준종합적’ 연구로, 그리고 계통적 연구에 더 가까운 ‘준계통적’ 연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적 유형 분류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리학에서 종합적 연구와 계통적 연구 간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분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및 발달 이후에도, 전통적 관점에서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관행이 지속되었다는 점은 국토지리정보원(2003-8)에서 발간한 <한국지리지>에서 확인된다. 국내 지리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지리지, 즉 국가지(國家誌)로서 지리지이다. 이 연구는 1980년대 <한국지리지> 총론과 지방편(4권)이 발간된 이후 국토공간의 급속한 변화를 고찰하고자 했지만, 실제 방법론과 서술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세계화에 대한 지역적 반응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많은 지역지들이 발간되었지만, 이들은 지역 이미지의 제고와 지역적 장소관측에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서술체계와 기술방법은 여전히 서술적 나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전중환, 2012).

국가 차원의 공식적 지리지와는 달리 지역 차원에서 많은 지리학자들이 참여하여 특정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경험적 연구로 최병두 등(2010)의 <고령군 지역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대도시(즉 대구) 근교지역인 경북 고령군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분야들을 거의 망라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찰하면서 “기존의 서술적이고 나열적인 지역지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즉 이 연구는 “지리학 내 각 분야별 전문 연구자들이 고령군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특성과 변화 과정을 계통적이면서도 또한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는 지리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종합적 지역 연구라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 간 관련성에 대한 고찰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역지리학이 가졌던 나열적 서술의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점은 신지역지리학의 한계, 즉 지역의 개방성과 지역 간 관계를 강조하지만 지역 내 각 분야들 간 관계성을 간과하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지역에 대한 공동연구(지리학자 일부 참여)이지만 전통적 의미의 종합적 연구라기보다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시의 발달과정과 현황을 준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로 정건화 등(2005)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대화의 문제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으로 간주되는 안산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공통된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공동연구자들이 선정한 세부 분야들은 경제, 노동(주로 외국인 이주자), 복지 환경 등 4개 분야로, 분야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일정한 내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안산지역의 근대화 및 도시화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지역에 대한 연구를 넘어 한국사회 근대화의 특징들이 응축된 단면을 해부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안산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도시화 과정이 관찰되는 지역의 대표적 사례로 설정하고 상호 연계된 세부 주제들을 공통된 관점에서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주장 또는 연구에서 문제점은 한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전체 지역들로 일반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준종합적 연구의 또 다른 사례로 이정록(200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광양만권 지역의 발전 또는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 "위치적 속성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중앙 정부의 정책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빠르게 변화한 사례"의 대표적 지역으로 광양만권 공업화와 지역경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태도, 그리고 지역의 발전 과제 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정건화 등(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 지역으로 광양만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했다.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과 지역 외적으로 주어지는 정책의 영향을 결합시켜 지역의 발전과정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산업화와 지역경제의 변화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분석보다는 주로 통계자료의 분석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인식태도도 보고서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지역에 대한 공동연구로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된 준계통적 연구(경제지리학적 연구)로는 박양춘 등(2003)의 연구를 우선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영남지역의 경제와 산업공간을 개관하고

관련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후,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와 산업도시로서 울산, 구미, 창원 등 산업도시들의 존립기반과 산업공간 변화를 고찰하고, 끝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공간 재편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와 지역혁신 이론에 근거를 두고 영남권 전체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도시들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 연구는 명시적으로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지향하면서, 최근 "지역에 관한 연구는 다른 지역들과의 상호관계와 전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전체 사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나가는 지역을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에 관한 준계통적 연구(문화지리학적 연구)의 또 사례는 심승희(2004), 임병조(2010), 홍금수(2014)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심승희(2004)는 서울의 각 지역들을 답사하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 속에 담겨있는 꿈과 희망의 과정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의 각 지역들을 답사한 후 '장소, 사람, 시간'의 3 요소가 엮어내는 삶의 층위들을 기억해주고 기록하고자 노력했다. 임병조(2010)는 내포지역을 연구하면서 지역에 내재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내포 지역의 자연지리적 상징, 방언, 민요, 종교 등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금수(2014)는 충남탄전 최대의 취락이었던 성주리 지역에서 "남겨진 산업유산의 흔적을 실마리로 탄광촌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전성기의 성주리 지역지리를 복원하고 그로부터 폐광 이후까지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들에서 대상 지역은 각각 서울이라는 거대도시 지역과 충남 성주리의 낙후된 탄광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별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의 연구로부터 지역지리학의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홍금수(2014, 4)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 주

변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 버린 “과거는 현재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성찰을 통해 기억되고 경관으로 재현되며 의미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승희(2004, 7)에 의하면, 어떤 지역의 특성을 해석하여 서술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또는 지역]는 그 장소를 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항상 새롭게 해석될 때만이 살아있는 장소가 된다. 장소가 타자에 의해 하나의 이미지로 규정될 때 그것은 이미 장소신화”가 되어버린다고 주장된다. 이들의 주장은 방법론적으로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즉, 이들의 연구는 지역의 고정된 이미지 또는 장소 신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을 파편화된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재서술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준)계통적 연구로, 지역 연구를 위한 거시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개별 도시나 지역들을 선별하여 고찰한 연구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최병두(2012)는 하비의 정치경제학과 신자유주의론에 바탕을 두고 1990년대 이후 한국 국가의 성격을 규정짓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기업주의 도시 개념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서울, 인천, 대구, 부산)의 부동산시장, 자유경제구역 개발, 민자도로 건설, 비엔날레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 있는 박배균·김동완 편(2013)은 르페브르와 브렌너의 국가공간론에 바탕을 두고 ‘다중스케일 네트워크적 영역성’의 개념을 제시한 후, 광주 지역 개발 담론, 포항 기업도시,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방법론 또는 분석틀로서 우선 거시적 이론이나 개념들을 제시한 후 이에 바탕을 두고 지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 지역지리학적 분석이라기보다 계통지리학적 지역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이후 지역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의 근본적 변화, 즉 거시적 이론을 배경으로 한 지역의 새로운 개념화를 고려해 보면 준계통적 지역(지리)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개별 지역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모든 지역들에 일반화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시적 이론이나 개념이 가장 잘 확인될 수 있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지역 연구 외에도 국내 특수지역이나 특정한 성향을 지닌 지역을 일정한 기준(또는 조건)에 따라 선정하여 고찰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박삼옥(2005)의 연구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과정의 증대로 인해 과거 변방으로 간주되었던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근거하여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이해를 시도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로 박삼옥 등(2007)은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로, 지역과 장수인의 두 차원을 조합하여, 사회문화 및 복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장수인과 장수지역을 살펴보고, 또한 생활환경과 의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수인의 지역적 차이와 장수지역의 산업체제 및 지역발전을 고찰하고 있다.<sup>3)</sup>

이상의 논의에서 거론된 한국 지역에 관한 종합적 (또는 준종합적/준계통적) 경험 연구는 거의 모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출간된 저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신)지역 지리학에 함의된 ‘(준)종합적’ 연구라는 전제조건, 즉 한·두편의 논문으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서술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어서 또 다른 문제, 즉 어떤 기준에서 종합적/계통적 연구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지역들과 다수의 연구 분야들(즉 지역을 구성하는 세부 부문들)을 어떻게 조합했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발표된 국내 지역에 관한 경험연구들(특수지역 연구 제외)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① 상위 지역(예로 국가)을 구성하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분야들을 고찰한 종합적 연구(예, 국토지리정보원, 2003~2008), 또는 ②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들을 분석한 종합적 연구(예로, 최병두 등, 2010), 그리고 ③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분야(부문)들을 중심으로 한 준종합적 연구(정건화 등, 2005; 이정록, 2006), ④ 특정 이론이나 개념(또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선별된 여러 지역들에 관한 (준)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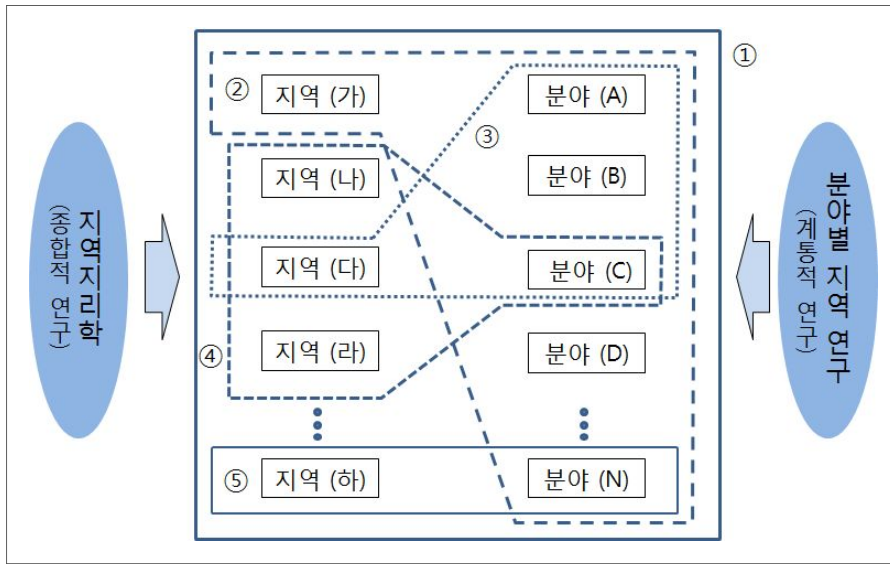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지리학/지역연구의 유형 구분

적 연구(최병두, 2012; 박배균·김동완, 2013), ⑤ 개별 지역에 관한 특정 분야(주제) 중심의 계통적 연구(박양춘 등, 2003; 심승희, 2004; 홍금수, 2013)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한 외형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종합적/계통적 지역연구의 구분은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 이후 방법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의미에서 보면, ①유형과 ②유형만이 지역지리학적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후자의 3가지 유형의 연구, 즉 준종합적, 준계통적 또는 계통적 연구라고 칭해 질 수 있는 연구들도 지역지리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면, 종합적/계통적 지역연구의 구분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구 유형의 스펙트럼에서 ①유형에서 ⑤유형으로 갈수록 전통적 의미의 지역지리학적 성향은 사라지고 계통지리학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종합적 지역연구와 계통적 지역연구의 구분이 이제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거시적 사회이론에 기반을 둔 (전통적 의미의) 종합적 지역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점은 (과거 아날학파의 지역연구처럼) 거대 사회이론 또는 통합된 관

점과 이에 따라 재구성된 지역 개념에 근거하여 지역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종합한 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sup>5)</sup>

## 5. 한국 신지역지리학의 연구 전망

전통적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다. 물론 헤트너나 핫슨은 지역 및 지역지리학의 개념 규정을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지역 및 (지역)지리학의 개념은 지리학사에서 그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통적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웃, 도시, 취락, 행정구역, 국가 등과 같은 서술적 용어 또는 열대우림지역, 상업적 미작지역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기후, 지형, 동식물이나 생태계, 경관이나 생활양식 등)으로 구분된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들로 표현된 지역의 개념은 일정하게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한 현상들의 독특한 성질과 연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렇게 구분된 지역들은 고정된 경계를 가지는 폐쇄된 범위 내에서 구성 부문들 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통적 지역지리학에서 신지역지리학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중적이며, 때로 매우 진부하고 번잡스럽다는 점에서 다른 용어들(그러나 더욱 모호한 개념들, 예로, 로컬리티, 클러스터 등)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신지역지리학의 등장·발달 이후 과거 전통적 의미에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 어떤 한 지역에 관한 종합적 경험연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역의 개념이 모호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전환하고, 종합적 지역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단지 지역에 관한 연구자들의 개념화와 연구방법론의 한계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의 개념 및 지역 연구 방법론을 더욱 확장시키고 정교하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지역의 개념과 지역 연구방법론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예로, 지역의 개념은 제습 등(Jessop, et al., 2008; 박배균, 김동완, 2013 참조)에 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4가지 유형의 공간개념 즉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4가지 공간적 개념들은 그 동안 지역 연구에서 흔히 혼용되기도 했지만, 모두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개념의 확장을 위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즉 장소는 위치, 현장, 장소감 등을 함의하며, 접근성, 이동성, 생활과 경험의 무

대, 공간적 뿌리내림 등으로 표현된다. 영역은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사건, 사물들에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네트워크는 직접적 상호행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여 형성된 공간적 연계를 의미하며, 사람들 간 또는 사물들과의 수평적 관계성을 함의한다. 그리고 스케일은 지구적, 국가적, 국지적 범위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며, 현실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관계들은 이러한 수직적 범위들을 가로지르는 ‘다중스케일’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4가지 공간적 차원들은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는 사회공간적 과정들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틀로 제시된 것으로, 사회공간적 관계들이 상호 구성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4가지 공간적 개념들을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할 경우, 특정한 개념들과 우선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실제 지리학의 세부 영역별 지역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관련된 공간적 개념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예로, 역사문화지리학에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장소 및 영역의 개념과 관련된다. 지역의 역사적 변화과정은 장소성 또는 지역 정체성의 상실 또는 변화라는 점에서 해석되며, 지역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흔히 영역과 관련된 사건들(예로 행정구역의 중심지 유치 등)을 통해 분석된다. 반면 경제지리학과 지역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지역혁신을 위한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집적과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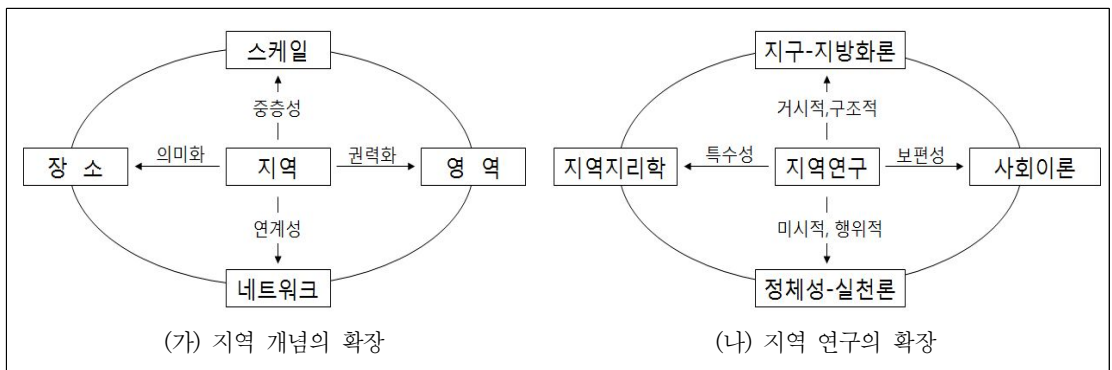


그림 3. 지역 개념 및 지역 연구의 확장

외적 네트워크의 특성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집적지역이지만 개방되고 내외적 네트워크들이 발달하여 제도적 밀집과 학습(지역), 사회적 자본, 벤처 생태계, 혁신 거버넌스 등 특정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특히 지리학 내에서 이루어진) 지역 연구에서 네트워크와 스케일의 개념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이러한 4가지 유형의 공간 개념들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sup>7)</sup> 예로, 4가지 유형으로의 공간개념의 정형화에 바탕을 둔 지역 연구는 전통적으로 지역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환경의 개념(또는 정확히 말해 인간과 환경 간 관계에 관한 개념)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공간개념은 르페브르(Lefebvre, 양영란 역, 2011)의 공간론에 바탕을 둔다고 하지만 르페브르에 의해 제시된 공간 개념화의 3가지 유형과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지 알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 개념의 정형화가 하비가 제시하는 3가지 공간 개념(즉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sup>8)</sup>

사실 지역 개념의 재구성을 위해 전제가 되는 신지역지리학의 방법론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전개된 많은 논의와 논쟁들 가운데 아직 초기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기든스(Giddens, 최병두 역, 1991)의 로케일(locale)의 개념과 영국 지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일련의 로컬리티 연구들을 둘러싼 논쟁들은 국내 지리학에서는 신중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혁신론 및 산업집적지(클러스터)이론과 관련된 신‘지역주의’와 이에 함의된 지역의 영역성 개념, 그리고 이에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과 이에 따른 지역의 연계성(네트워크)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은 국내(지역)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 밖에 있다. 그러나 영역적 지역 개념과 관계적 지역 개념 간 논쟁은 매우 모호하면서도 중요하다. 지역에 관한 국내 지리학자들의 논의에서 이러한 논쟁들은 간혹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되었고, 최근에는 박배균에 의해 제시된 것처럼 ‘다중스케일의 네트워크적 영역성’

의 개념으로 건너뛰어 넘고 있다. 이 개념은 영역성/관계성이라는 이분법에 바탕을 둔 지역의 개념화와 논쟁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회적 관계의 4가지 공간 개념들을 단순히 절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는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개념으로 정형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지역 개념의 재구성과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모색에서 나아가서 지역연구를 위해 적합한 이론들에 관한 관심과 노력도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에서 방법론에 관한 주장들은 대체로 거대 사회이론이나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거대 담론들은 물론 지리학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특히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거대 담론을 반영한 경험적 지역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거대 담론들이 신지역지리학의 부활에 기여한 것은 ‘지역’ 개념과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지역지리학의 연구자들은 거대 담론 그 자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거대 담론에 내재된 지역 개념과 지역지리학 방법론을 더욱 구체화하여 경험적 연구에 원용될 수 있도록 분석틀을 정형화해 나가야 한다. 즉 지역지리학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회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찰하게 되며, 또한 그 역으로 보편적 사회이론들은 사회적 현상들의 지역적 특수성을 내재해야 한다.

지역연구는 또한 경험적 고찰에서 지표상의 모든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다규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정 현상이나 과정이 어떤 스케일에서 더 강하게 규정되거나 작동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에 관한 연구는 특정 현상의 특수성이 해당 지역의 개별적 특성의 영향 또는 조건에 의해 우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지역이 어떤 경계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상들의 특성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사전적으로 주어진 지역의 내적 특성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의 실천은 지역에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며, 이러한 실천과 정체성은 지역 만들기의 내적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지역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의해 추동되는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끊임 없이 변화하지만 또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실천과 정체성이 쉽 없이 표출되면서 생산되고 재생산되게 된다. 요컨대 지역은 자본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의 구조적 배경과 지역 주민들의 실천과 정체성 간 부단한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 6. 결론

이른바 신지역지리학이 지리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 또는 연구 경향으로 등장한지도 20년이 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새롭다’는 의미의 ‘신’지역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의미에서 지표면의 일부로서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와 사회 각 부문의 공간적 측면에 관한 계통적 연구 간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지역’지리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의미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에서 인간 삶이 영위되는 한, 그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에 관한 연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역)지리학은 거시적 사회이론의 발달에 기반을 둔 학문의 내적 발전과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사회의 외적 변화에 조응하여 역동적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서구 지리학의 영향, 특히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퇴조와 새로운 거시적 사회이론들 또는 거대 담론들의 도입을 배경으로 부각된 지역지리학에 관한 주장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국내의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은 연구대상인 지역의 변화보다는 다양한 사회이론들과 이들에 관한 지리학적 해석과 원용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지리학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리학에서 이러한 논의는 현실 세계의 변화 즉,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 및 이에 동반되었던 기술혁신과 포스트포드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시공간적 압축,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동성 증대와 정체성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전은 거시적 사회이론들에 관한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의 증대와 현실 세계의 변화에 조응하는 지역의 재구조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시작된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국내 논의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들은 거시적 사회이론들에 내포된 (지역)지리학적 함의들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지리학에 관한 국내 지리학자들의 관심과 논의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신지역지리학에 관한 국내 논의들은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논의 수준도 서구 지리학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던 1990년대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연구를 둘러싼 새로운 개념적 논의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지역지리학을 지칭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적 용어들이 재해석되거나(예로 장소, 경관, 영역 등) 또는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예로, 네트워크, 스케일, 로컬리티 등).

국내 신지역지리학의 등장과 발달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들이 지역에 관한 새로운 경험적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년간 지역에 관한 ‘종합적’ 경험연구는 수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원용된 연구방법론도 전통적 방법론에서부터 ‘준’종합적 또는 ‘준’계통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지역지리학적 방법론에 바탕을 둔 경험적 연구가 수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학의 세부 분야별 전공영역들에서는 그 분야에 적합한 지역 개념들과 중범위 이론들을 배경으로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그리고 동원된 연구방법론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일관된 체계적 지역연구방법론이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지리학 또는 지역 연구에서 종합적 연구와 계통적 연구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1990년대 신지역지리학이 부각된 이후, 이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경험적 고찰에 있어서도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리학은 지역에 관한 학문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버릴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지역지리학은 항상 지리학 연구방법론이나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전제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지리학이 '지역'에 관한 전통적 의미나 진부한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개념은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나아가 공간, 경관, 환경 등 다양한 공간적 용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성격(예로 실체성/구성물, 영역성/관계성 등)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리학에서 지역 연구는 종합적 연구/계통적 연구의 이원론을 벗어나서 더욱 집합한 사회공간적 이론들을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원용하여 지구-지방화 과정에 관한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주체들의 실천적 행동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

- 1) 이 논문에서 지역 및 지역지리학의 개념은 지리학의 발달 과정에서 제시된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정의, 즉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지표면의 한 부분과 이에 관한 연구로 규정된다. 그러나 '지역연구'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로 지역연구는 행정 단위로 구분된 특정 지역(area)에 관한 연구 또는 중앙에 대칭되는 지방(local) 연구(이규태, 2007), 심지어 '해외지역연구'의 준말로 이해되기도 한다(김희순, 2000).
- 2) 또한 김재완(2000) 참조. 이 연구에 의하면, 1920~30년대 독일의 지리학 동향은 일본 지리학자들(예로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 田中啓爾)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국의 지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국의 지리학자들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 3) 외에도 특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국을 지역별로 유형화하고자 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임석희(2005)는 농촌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농촌 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별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각 유형별 농촌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다른 한편, 김준우·안영진(2008)은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일부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체현되는 국내 도시 및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사례들을 편집하

여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 5) 예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편집한 <서울연구>(1994)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통합된 관점에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신지역지리학적 연구의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6) 제슈 등(Jessop *et. al.*, 2008)은 이러한 4가지 공간적 차원들을 구조화 원리로서 4가지 요소와 작동의 장으로서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상호교차시킨 행렬체계를 해석함으로써 사회공간적 관계의 일차원적 설명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동일한 4가지 차원의 상호교차를 통해 구축된 행렬체계가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가는 의문이다.
- 7)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심광택(2003)은 지역의 개념(또는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 공간(설명), 장소(이해), 환경(가치)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8) 최근 하비(Harvey; 최병두 역, 근간)는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 제2부에서 지리학의 전통적 개념들인 지역, 환경, 공간(그리고 장소)의 개념 등을 심도 있게 재해석하고자 했지만, 제슈 등의 연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문헌

- 구동희, 2010,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44(4), 509-523.
- 국토지리정보원, 2003-8, 한국지리지: 총론 및 각 지역 편.
- 권오혁, 2006, 신지역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국토계획, 41(1), 21-40.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 근대 지역지방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 김덕현, 2002, 지역개발론과 지역지리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70-183.
- 김인, 1983, 지리학에서의 페러다임 이해와 쟁점, 지리학논총, 10,
- 김재완, 2000, 1920~1930년대 독일 지리학의 연구동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1), 69-89.
- 김종규, 2014, 코리아: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리, 푸른길(Lautensach, H., 1945, *Korea: 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 Koehler, Leipzig).
- 김준우·안영진 편, 2008, 선집으로 읽는 한국의 도시와 지역, 박영사.
- 김희순, 2000, 지역연구의 특성과 지리학과와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35(2), 243-258.

- 류연택, 2012,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시와 지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125-139.
- 류우익, 1986, 현재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6(4), 246-263.
- 류제현, 1987, 미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의 발달, 지리학 논총, 14, 345-358.
- 박규택, 2005, (탈)근대 지역과 사회경제발전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이론 고찰, 지리학논구, 24, 181-196.
- 박규택·이상봉, 203,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60-74.
- 박배균, 2001, 규모의 생산과 정치, 그리고 지구화, 공간과 사회, 16, 200-224.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박배균·김동완, 2013,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 박삼옥, 2005, 사회경제공간으로서 접경지역: 소외성과 낙후성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삼옥·박상철·최성재·이정재·한경혜, 2007,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양춘 등, 2003,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와 도시 산업공간의 재편: 영남지역 연구, 한울.
- 박태화, 2002, 한국 전통지리 사상에서의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의 재조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61-169.
-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지리교육논집, 22, 80-91.
- 손명철,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명보문화사.
- 손명철, 1995, 프랑스 지역지리연구의 전개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 81-91.
- 손명철, 2002, 근대 사회이론의 접합을 통한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방법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50-160.
- 송언근, 1996, 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신지역지리학의 방향 모색,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31, 49-75.
- 심광택, 2003, 지역 학습에서의 공간 설명, 장소 이해, 환경 가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3), 17-31.
- 심승희, 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나노미디어.
- 안영진(역), 2013, 지리학 1, 2 - 역사 본질, 방법, 아카넷 (Hettner, A., 1927, (Die) Geographie : ihre Geschichte, ihr Wesen und ihre Methoden, Breslau).
- 안영진, 2006, 현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전개 - 전통과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189-201.
- 안영진·김상빈, 2004,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554-567.
- 양영란(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로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ECONOMICA, Paris).
- 이규태, 2007, 한국의 '지방학'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학연구, 28, 177-209.
- 이기봉, 2005, 지역과 공간, 그리고 장소, 문화역사지리, 17(1), 121-137.
- 이기석, 1982, 계량혁명과 공간조직론, 현상과 인식, 4, 157-177.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5-134.
- 이재하, 2012,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 대한지리학회지, 47(1), 140-157.
- 이정록, 2006, 광양만권 잠재력과 비전, 한울.
- 이정훈, 2004, 지역개발에서 차별화된 장소이미지 설정을 위한 장소분석 방법론 재구축, 지리학연구, 38(4), 479-495.
- 이희상, 2009, (비)장소로서 도시 기계공간: 대구 지하철 공간의 기호적 재현에 대한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4(3), 301-322.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

- 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 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임병조·류제현, 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582-600.
- 임병조, 2010, 지역 정체성과 제도화: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한울.
- 임석희, 2005,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 211-232.
- 전중환, 2012, '소규모 지역'에 있어서 지역정체성의 재현과 지역지의 서술체제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3(1), 13-26.
- 정건화 등, 2005, 근대 안산의 형성과 발전, 한울.
- 지명인, 2012, 신자유주의적 공간 재편의 맥락에서 본 구룡마을 경관에 대한 비판적 해석, 문화역사지리, 24(2), 186-207.
- 최병두(역), 1991,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lan, London).
- 최병두(역), 2002, 정보도시, 한울(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Blackwell, London).
- 최병두(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 Press, Oxford).
- 최병두(역), 2013,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로(Crang, N. and Thrift, N., 2000, *Thinking Space*, Routledge, London).
- 최병두(역), 근간,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 삼천리(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Geographies of Freedom*,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 최병두, 1988,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지리학, 38, 37-60.
- 최병두, 2002a,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31-149.
- 최병두, 2002b,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 253-278.
- 최병두, 2012a,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정책, 한울.
- 최병두, 2012b,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42, 92-133.
- 최병두 등, 2010, 고령군 지역연구: 대도시 근교지역의 특성과 발전 과제, 푸른길.
- 최재우, 1997, 한국 지역지리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지리학논구, 17, 158-171.
- 최재현,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1994, 서울연구, 한울.
- 한국지리연구회 역, 1998, 지리학의 본질, 민음사(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AG, Lancaster).
-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홍금수, 2014, 탄광의 기억과 풍경: 충남 최대의 탄광 취락 성주리의 문화역사지리적 회상, 푸른길.
- 홍금수·김수진·김태형, 2012, 도시 공간 속의 촌락: 중계본동 '104마을' 서민 경관의 퇴락, 문화역사지리, 24(1), 50-75.
-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208-228.
- Gregory, D.,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St. Martin's Press, New York.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 Johnston, R. J., 1979, *Geography and geographers: Anglo-American human geography since 1945*. London: Edward Arnold
- Pudup, M.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369-390.
- Smith, N., 1984,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접수: 2014.07.30, 수정: 2014.10.21, 채택: 2014.10.30)